

2015년 하반기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연수 교종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 사회교리적 관점에서 본 회칙 〈찬미받으소서〉

- 유경춘 주교

❖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 박동호 신부

복 음 화 실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연수 일정표

◆ 일시 : 2014년 11월 23(월)~11월 25일(수)/ 이시돌 피정의 집

◆ 주제 : 교종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 11월 23(월) -

시간	내용	비고
17:00~18:00	접수/ 시작 전례	복음화실
18:00~19:30	저녁식사	
19:30~21:00	O.T/ 제1강의	유경춘 주교
21:00~	마침기도 및 취침	

- 11월 24일(화) -

시간	내용	비고
07:00~07:30	기상 및 세면	
07:30~08:30	아침기도(조별 복음나누기)	
08:30~09:30	아침식사	
09:30~10:30	제2강의	유경춘 주교
10:30~11:00	휴식	
11:00~12:00	본당별 토의 및 나눔	
12:00~15:00	점심식사/ 휴식	
15:00~16:00	제3강의	박동호 신부
16:00~17:00	본당별 토의 및 나눔	
17:00~18:00	미사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제4강의	박동호 신부
20:00~20:30	휴식	
20:30~	자비의 회년 준비사항 설명/ 아침기도	

- 11월 25일(수) -

시간	내용	비고
07:00~07:30	기상 및 세면	
07:30~08:30	아침기도(조별 복음나누기)	
08:30~09:30	아침식사	
09:30~10:30	교구장 사목교서 및 실천지표 발표 훈인 멘토링 교육 현황 보고	
10:30~11:00	휴식	
11:00~12:00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이영아 교수
12:00~	점심식사 및 파견	

* 상황에 따라 일정표의 시간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교리적 관점에서 본 회칙
〈찬미받으소서〉

- 유정촌 주교

사회교리적 관점에서 본 회칙

〈찬미받으소서〉

유경춘 주교

- 회칙 찬미받으소서(LS)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번째 교도권 문헌이면서, 회칙으로서 두 번째이고 동시에 그의 첫 번째 사회회칙이다.
- 문서의 수신인(LS 3+14) : 프란치스코 교황의 앞선 문헌들은 ‘주교와 신부, 부제, 수도자와 모든 평신도에게 보내는’ 회칙(신앙의 빛)과 교황권고(복음의 기쁨)이었으나, LS는 ‘지상의 평화’(1963) 이래로 일상적이 된바, ‘선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진 문서.
- 회칙의 구성 : 서론과 6개章 246개項, 2개의 기도문으로 구성
- 회칙의 대주제 :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모든 인간의 책임
- 회칙의 제목 :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태양의 찬가’에서 ‘나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1. 방법론(LS15)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래로 특징적인 ‘시대의 징표 신학’ (사목헌장 4)에 따른 3단계 전개방식을 따름 : 보기 - 판단하기 - 행동하기

현실직시 : 제1장

공동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렬하게 자각하자. 왜? 그것을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위해서!(LS 19).

- 각종 오염(하늘/땅/물) : 생물학적으로 분해 어려운 맹독성 쓰레기 더미로 가득찬 지구. 재생불가능한 자원사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절제, 재활용 등으로 “버리는 문화”를 버려야!
- 온난화 : 화석연료의 엄청난 사용과 산림파괴로 가속화 → 생활양식, 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의 변화,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확대로 화석연료사용 대체해야.
- 물(수질오염과 물부족) : 식수확보는 보편적 인권문제. 세제와 화학제품들이 계속 강, 호수,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 생물다양성 감소 : 숲의 파괴와 바다의 오염으로 해마다 수천종의 동식물이 멸종.
- 삶의 질 저하 : 생태적으로 건강할 수 없는 도시의 확대와 디지털 생활환경

- 세계적 불평등 : 인간환경(가난한 이의 고통)과 자연환경(지구의 고통)은 동전의 앞뒷면.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생태적 빗'. 다국적 기업을 통한 오염수출. '차등적 책임'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적 성과는 미흡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쁜 소비습관, 피상적 생태론, 회피적 태도 등 고수. 기술중심주의 or 생태중심주의? 양극단의 중용 바람직!

판단 : 제2-3-4장

- 신학적 원칙 : 대신, 대인, 대자연의 상호관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자연을 돌보고 가꿀 의무를 창조주로부터 받음. 모든 피조물이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됨. 조화로운 관계의 단절이 곧 죄. 예수님은 피조물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사신 분. 자연은 그분의 현존으로 충만. 인간사회의 문제해결은 자연문제의 해결과 상호 조건적으로 연결됨. 지구는 인류 공동의 유산. 재화는 보편적 목적에 이바지해야 함(사유재산의 사회적 성격).
- 위기의 근원 : 자연자원의 활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여 무한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 세계정치와 경제를 장악. 그릇된 인간중심주의가 낳은 그릇된 생활양식과 상대주의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시각, 사고방식, 생활양식, 영성이 필요.
- 통합생태론 : 세상이 하나의 관계망으로 연결. 사회위기와 환경위기는 하나의 복합적 위기의 양면. 위기해결위해 공동선의 관점에서 미래세대까지도 포함한 통합적 시각이 필요 → 통합생태론. 환경과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 등에 대한 복합적인 시각 필요.

행동 : 제5-6장

- 대화가 필요하다 : ①국제정치에서 환경협약들을 실행하고 위반 시 국제적 제재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세계적 합의가 필요. 참된 세계적 정치 권위가 절실히 요구됨. 모든 나라가 공동의 그러나 차등적 책임을 져야 함. ②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획일적 해결책은 없으므로 지역에 따른 고유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비정부기구와 중간집단들,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정책 결정에 솔직하고 열린 토론 필요. ③이윤극대화에 붙잡힌 경제가 스스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정치가 결여된 경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학제적 대화를 포함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을 하는 정치가 필요. 정치와 경제가 공동선을 위해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필요 ④과학과 종교의 대화를 통해, 과학 기술적 한계를 종교적 지혜와 영감이 보완해 줄 것.

- 생태교육과 영성 : 소비지향적 생활양식의 탈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환경 교육이 중요. 그 교육을 통해 얻은 생태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져야 함. 사소한 실천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 것. 교육은 학교, 교회, 수도회나 사회단체만이 아니라 가정이 가장 중요한 생태교육의 못자리. 생태적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이기도 함.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 안에서 가진 것이 적어도 기쁨과 평화누리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집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식. 주일은 대신, 대인, 대자연 관계를 치유하는 날이고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이다.

2. 패러다임의 확대발전

레오13세 “새로운 사태”(RN 1891) 노동문제 Justice 정의의 문제
백주년은 RN을 최초의 사회회칙, 정의/인권/연대성 보조성원리/가난한 이들에 관한 최초의 회칙이라고 평가

- RN반포 40주년: 사십주년(비오11세, 1931)
- RN반포 70주년: 어머니요 스승(요한23세, 1961) 지상의 평화(1963)
선언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최초의 회칙
- RN반포 80주년: 팔십주년(바오로6세, 1971)
- RN반포 90주년: 노동하는 인간(요한 바오로2세, 1981)
- RN반포 100주년: 백주년(요한 바오로2세, 1991)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PP 1967) 발전문제 Peace 평화의 문제
국제적 빈부격차, 발전의 문제 “발전은 평화의 새 이름” “발전은 곧 평화”(PP 87)

교황직속 ‘정의평화위원회’ 신설(PP 5) 1968.1.1부터 ‘세계평화의 날’신설

- PP반포 20주년: 사회적 관심(SS 요한 바오로2세, 1987)
- PP반포 40주년: 진리안의 사랑(CV 베네딕토16세, 2009)

“이 회칙(PP)이 발표된 지 40년이 넘는 지금 저는 위대한 교황 바오로 6세를 기리며 온전한 인간발전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을 다시 살펴보고, 그 길에 새겨진 이정표를 따라, 이 시점에 그 가르침을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을 현대 상황에 계속 적용시키는 일은 하느님의 종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민족들의 발전 2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하신 회칙 사회적 관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사태만을 그렇게 기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0년이 더 흐른 지금, 저는 민족들의 발전을 일치로 나아가는 인류의 여정을 밝혀주는 ‘이 시대의 새로운 사태’로 여겨야 마땅하다고 확신합니다”(CV 8).

하지만 SS(29,34) 뿐만 아니라 CV(48-51)에서도 환경문제는 아주 간단히만 취급됨.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LS 2015) Integrity of Creation 생태문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교황들의 전통적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전개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날카롭게 하도록 새로운 역동성을 도입함.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고 사랑의 결실(GS 78)인데, 그동안에는 인간끼리의 정의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생태정의를 강조하면서 인간끼리의 사랑만이 아니라 자연사랑으로까지 사랑의 범위를 확대.

- 바오로6세-생태적 재난 경고하면서 긴급한 변화를 촉구(LS 4).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전격적 회개의 필요성 제기
- 요한 바오로 2세-세계적 생태적 회개요청(LS 5). 자연적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도덕적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내적 단일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간 생태계’라는 말을 강조
- 베네딕토16세-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연환경과 인간환경 동시 훼손(LS 6). 인간과 자연이 더 이상 경제적 유용성이나 정치적이고 의학적 조작에 이용당하지 않게 될 때야 비로소 인류자멸의 길로부터의 돌아설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핵심관심사는 ①모든 인간의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염려(생태문제)와 ②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발전문제) : 환경을 위한 투신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투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생태적 불의와 사회적 불의가 별도로 취급될 수 없다(통합생태론).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두 가지 기본 관심사를 묶어주는 분(통합생태론의 모범)이다(LS 10).

지구적 발전문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처음으로 생태문제를 핵심주제로 다룬 최초의 사회회칙이라는 점에서 LS는 가톨릭사회교리에서 중요한 이정표임. 이 시대와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사태’가 될 것.

3. 가톨릭사회원리의 귀결 : 통합생태론

- 사회교리의 핵심은 인간존중의 실현에 있다. 인간존중이 곧 하느님의 존중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존중과 연관된 모든 것이 교회의 관심사가 되고, 가톨릭사회교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의 문제가 바로 자연파괴이다. LS가 자연파괴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사회교리의 확대된 핵심 관심사를 잘 드러낸 셈이다(인간존엄성의 원리).
- 세상이 하나의 관계망으로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통합생태론의 통찰은 연대성과 공동선, 보조성의 원리와 같은 가톨릭사회원리의 핵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 미래세대까지를 포함하여 창조세계 안에서 모두 하나의 공동 운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책임 강조됨. 지역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중시됨.

- 사유재산권/재화의 공통목적·공동사용 원리 :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님!(가톨릭 사회원리). 지구는 인간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인간 맘대로 할 수는 없음. 세상은 창조주의 것(궁극적으로 주인은 하느님이고 인간은 관리자일 뿐).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無償性의 원리(the principle of gratuitousness)를 실천하는 것은 창조주의 뜻. 재화의 공통목적성처럼 자연도 모두를 위한 것(통합생태론).
- 가톨릭사회교리의 핵심은 ‘사랑’이다(진리안의 사랑). 통합생태론이 제시하는 궁극 목표도 ‘사랑’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창조주 하느님께서 원래 만드신대로 세상 안에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모든 사회원리도 사랑을 위한 도구인 것. 특히나 무상성의 원리는 말할 것도 없음.

4. 열린 사회교리

- 보편교회의 실현으로서의 지역교회 강조(사목현장 이후 교회론): 귀납적, 경험적, 성서적, 학제간 연대 강조. 통상 바티칸 문서를 지역교회가 인용하고 실천하는 수직적 구조가 일반적이었다면, 이번 문서는 교황회칙이 지역교회의 문서를 광범위하게 인용함으로써 보편교회와 지역교회가 상호 보완적 형제관계임을 드러낸 파격.
- 각국 주교회의들을 격려: 생태문제에 대해 각국 주교회의들의 다양한 문서들을 인용함으로써 주교들의 공동교도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정한 셈. 또한 각국 주교회의들이 생태문제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작업을 해왔는지 보여줌.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를 통해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생태적 치유를 향하여’(2008)와 ‘창조질서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환경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2010)를 발간했으나 영문으로 발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남아프리카 주교회의, 환경위기에 관한 사목성명, 1999
- 뉴질랜드 주교회의, ‘환경 문제에 관한 성명’, 2006
- 도미니카 주교회의, 사목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하여’, 1987
- 독일주교회의 사회문제위원회, ‘기후변화, 세계적, 세대간, 생태적 정의의 핵심문제’, 2006
- 독일주교회의, ‘피조물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 환경과 에너지 대책에 관한 독일 주교회의 성명’, 1980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주교회의, 제5차 정기총회문헌, 2007
- 멕시코 주교회의 사회사목위원회, ‘예수 그리스도, 토착민과 농민의 삶과 희망’, 2008
- 미국 주교회의, 성명 ‘세계 기후 변화: 대화와 분별과 공동선의 요청’, 2001
- 볼리비아 주교회의, 볼리비아의 환경과 인간 발전에 관한 사목교서 ‘세상, 삶을 위해 하느님
께서 주신 선물’, 2012
- 브라질 주교회의, ‘교회와 생태적 문제들’, 1992
-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사목위원회, ‘모든 이를 위한 땅’, 2005
-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코마우에 주교단, 성탄 담화, 2009
-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가 후원하는 세미나의 선언문 ‘피조물에
대한 사랑. 생태 위기에 대한 아시아의 응답’, 1993
- 일본 주교회의, ‘생명에 대한 경외. 21세기를 위한 담화’, 2000
- 캐나다 주교회의 사회문제위원회, 사목교서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
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2003
- 파라과이 주교회의, 사목교서 ‘파라과이 농민과 땅’, 1983
- 포르투갈 주교회의, 사목교서 ‘공동선을 위한 연대 책임’, 2003
- 필리핀 주교회의, 사목교서 ‘아름다운 우리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1988
- 호주 주교회의, ‘새로운 지구, 환경적 도전’, 2002

-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고 해석하는 일은 하느님 백성 전체의 의무
이며 특히 사목자, 신학자들의 의무(GS 44항). 그런 점에서 LS가 지역교회 사목
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신학자들의 의견(샤르댕, 가르디니)을 인용한 것은
고무적이다.

5. 「찬미받으소서」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다시 JPIC: 1990. 3 서울 JPIC 세계대회. LS반포는 IC가 JP를 대체하는 의미가
아니라 JP의 문제를 IC의 문제로 종합한 것이다. 따라서 LS를 어떻게 실천할 것
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JPIC 의식, 논의, 사목구현을 확산시키기.
- 한마음한몸운동 : JPIC 운동으로서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활동 다시보기.
세상 모든 인류가 온갖 종류의 장벽을 넘어 평화를 이룩하고, 회심과 나눔으로 형제적 일치를
이루도록 이바지하며, 나아가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과도 화합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생활쇄신 실천운동으로 출범

그리스도교(사회교리)의 핵심메시지인 ‘사랑’은 JPIC의 근간. 한 몸 의식의 표현이
사랑이기에, 교회가 한 몸 의식을 실천할 때 이것은 동시에 JPIC의식의 실천이기
도 함. 한 몸 의식을 지닐 때 고통받는 이웃과 자연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
김(1코린 12,26). 한 몸 의식은 JPIC실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원동력.

- 환경사목위원회 : ‘즐거운 불편 운동’, ‘아나바다 운동’과 같은 실천운동 프로그램의 강화
- 환경분과 : 본당 사목평의회 환경분과 조직 활성화
- 하늘·땅·물·벗 : ‘하늘·땅·물을 살리는 벗들의 모임’(하늘·땅·물·벗 모임) 1991.8시작: 신자들의 자발적인 모임 없이는 지속적인 환경운동유지 어려움. 따라서 빈첸시오회(정의), 마리아의 푸른군대(평화), 군종후원회(평화)등과 같은 사도직단체로서 <하늘·땅·물·벗>의 본당 내 조직을 생각할 수 있음. 한 본당에 여러 개의 <하늘·땅·물·벗>조직도 가능할 것. 예를들면 <1구역 하늘·땅·물·벗>, <2구역 하늘·땅·물·벗>.... 그런 모임들이 현행 반모임, 구역모임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회합때 공동기도, 말씀/생활나눔도 병행할 수 있고 생태문제에 관한 나눔과 활동 가능.
- 주교회의지침 활용 : ‘창조질서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환경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2010)에 수록된 “책임있는 실천을 위한 제언” 다시보기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 박동호 신부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박동호 신부(서울 정의평화위원회, 신정동성당)

“우리는 아무도 묻지 않는 물음에 대해 절대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면서,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폭넓고 깊은 감수성을”(『복음의 기쁨』, 155항, 이하 권고) 가져야 한다고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호소한 ‘교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해 우리나라를 다녀가신 프란치스코 교종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교회의 사람이면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분입니다.(권고, 273항 참조) 그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자신의 사도권고의 ‘강론’ 부분에서 이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는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특히 ‘사목자’들에 한 호소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6월 교종은 회칙 『주님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이하 회칙)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회칙’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사람이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편지(encyclical letter)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어느 뉴스보도는 교종이 이 편지를 두고, 미국의 어느 정당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내용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편지가 너무 길어서 읽는 데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온다면 평화신문 독자들께서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편지가 왜 그렇게 즉각적이며 단호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더 바란다면, 우리의 현실,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자문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교종은 오늘의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고안하여 자기 파괴적 악행을 키운다”고 합니다. 즉 “그 악행들을 보려하지 않는 것, 그 악행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 그리고 아무런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가장하는 것”을 고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마디로 ‘회피’의 면허증이라 하는데, 이 면허증을 갖고 오늘의 우리는 “지금의 생활방식과 생산과 소비 모델 지속”(회칙, 59항)시키려 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의 생활방식이 어때서? 좋기만 한데, 없는 것 없고 얼마나 좋은데, 교종은 왜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하는 거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생산과 소비가 어때서 그래!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종 같은 “종교인이 세상일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세상 문제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여 혼란을 야기한다.”고 점잖게 혹은 속으로만 꾸짖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교종의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정보의 홍수 속에 흘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전장에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 이등병”(권고, 96항) 애인이 보낸 편지처럼 읽고 또 읽으며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유대를 확인하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변함없는 연대와 형제애를 다짐하면서 동행의 길을 나설 것입니다.

사실 교종은 절규를 듣고 응답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삶에 실제 영향을 주는’ ‘폭력’ 때문에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듣고 응답합니다. 그는 편지에서 우리의 누이와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탄원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이 누이가 지금 우리가 그녀에게 입힌 상처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그것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회칙, 2항) 누이가 누구니까? 나와 피를 나눈 혈육이 아닙니까? 그 누이는 또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또 자식들이 입힌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이 누이이며 어머니는 바로 ‘대지’입니다.

이쯤 되면, 독자께서는 교종의 편지가 ‘환경’에 관한 것이라 대뜸 눈치 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자연을 보호해야지!’할 수도 있겠으나, 그분은 그렇게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환경과 인간과 윤리의 타락”(56항)이 동맹하여 “끔찍한 불의”(36항)를 저지르고 있으며, 대다수의 우리는 그에 대해 ‘회피의 자격증을 갖고’ 그 불의에 침묵합니다. 그러는 사이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는 신음하고, 하늘과 땅과 물에서 그 존재로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무수한 하느님의 피조물의 찬미 노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며, 무수한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나라는 배제되어 내 버려져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권고, 53항 참조)

교종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일에 “예”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피’일뿐 아니라 ‘거절의 다른 방식’이며 ‘속이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251항 참조) 교종은 “기꺼이 갈등에 용감하게 맞서고,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과정의 고

리에 그 갈등을 연결시키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 길이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227항) 그래서 교종은 고통스러운 불편한 현실과 마주섭니다.

교종은 회칙의 제1장에서 ‘우리의 공동 가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고 묻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오염과 기후변화, 물의 빈곤, 생물다양성 상실, 인간의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의 고장, 지구의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제안합니다. 교종은 이 문제들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카펫 아래에 쓸어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검토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자각” “세상의 고통을 인격적 고통으로 전환시키기”, 그리고 “행동의 길 찾기”를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회칙, 18항)

교종이 교회 특히 개별교회에 ‘식별, 정화, 개혁의 과정’을 촉구하신 것을 기억한다면(권고, 30항 참조), 너무나 당연하고 실질적인 초대입니다. 사실 교종은 ‘실재 주의자’라 자처합니다.(109항) 그런데도 그 시급성과 중대함에 비해 우리의 응답이 턱없이 모자라며, 새로운 ‘대화’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교회가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나서겠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교종은 ‘병의 증세’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소개하면서, 문제를 야기한 배경 곧 구조적 원인을 ‘불편함’이나 ‘비난’을 회피하지 않고 드러내려 합니다. 지루하겠지만 옮겨놓겠습니다.

“진보와 인간 능력에 대한 비이성적 자신감”(19항), “기술과 기업 이익의 결합”(20항) “내다버리는 문화와 자원보존능력을 결여한 산업시스템”(22항)과 악순환(24항), 광범위한 무관심과 동료에 대한 책임감 상실(25항) “일부 더 많은 자원과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기적 관심”(26항) “물 자원을 사유화하여 시장의 규칙에 종속된 상품으로 만들려는 경향”(30항)과 “거대다국적 기업의 물 관리 시도”(31항) “경제와 무역과 산업에의 근시안적 접근”(32항) “기업의 이익과 소비에 기여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인간의 자연에의 개입”(34항) “거대한 경제세력, 초국적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38항) “지금의 발전모델”(43항)과 “지난 2백년의 성장”(46항) “지금의 문제의식 방식”과 “사회적 약자들과 멀리 떨어져” “부유한 도시에서”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을 향유하는 “전문가들, 여론 형성가들, 소통 미디어와 권력”의 “실재의 중요 부분들을 무시하는 편향된 분석 제시”(49항) “지금의 분배 모델을 합법화하려는 시도”(50항) “구조적으로 부당한 상업관계와 소유 시스템”과 “차별화된 책임의 무시”(52항) “정치, 자유, 정의에 대한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기

초한 새로운 권력구조들의 압도”(53항) “경제와 기술 사이의 동맹과 나약한 정치적 대응”(54항) “투기와 금융소득을 우선하는 경제권력”(56항) “충돌에 대처해야 할 정치에 강하게 저항하는 막강한 금융세력”(57항)

“이 시점에 누가가를 권력에 집착하도록 획책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 필요했을 때 행동을 취하지 못한 무능함으로 기억될 뿐인데도, 그가 그 권력에 집착하도록 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회칙 57항)

듣기가 매우 거북한 말을 왜 했을까요?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종은 약한 존재, 약한 사회뿐만 아니라, 너무나 약하고 무력한 “경제적 이익이나 무차별적 착취 앞에 [아무런 방어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채] 노출되어 있는 피조물 전체”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합니다. 그는 ‘종의 멸종’을 ‘고통스러운 신체의 손상’으로, ‘땅의 사막화’를 ‘육체적 만정질환’으로 느낍니다.(권고, 215항) 게다가 교종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단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저의 삶을 봉헌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은 것”(274항)이라고 믿습니다.

서론과

제1장 지금 우리의 공동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호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우리의 ‘누이와 어머니의 절규’를 듣고 응답한다는 요지의 글을 실었다. 응답에는 단순히 듣는 것만 포함되지 않는다.

아픈 사람과 의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그냥 ‘아프시군요!’ ‘어떻게 하지요?’ ‘그냥 껍 참으세요.’하지 않는다.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묻고, 필요하다면, 첨단의료장비를 동원해서 검사하고, 그래서 증세와 함께 그 원인을 찾아내려 하고, 그에 맞게 치료한다. 대개 병이 중할수록 혼자 하지 않고 협진을 한다. 물론 최악의 상황은 ‘저희로서는 달리 할 수 있

는 일이 없군요.’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일 것이다. 병이 있으면 느끼건 못 느끼건 증세가 있는 법이다.

회칙의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오염과 기후변화, 물 빈곤, 생물 다양성 상실, 인간 삶의 질 저하와 사회의 붕괴, 지구의 불평등 따위는 병의 증세들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래서 간단히 ‘환경’문제라고 보려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최초의 환경’ 회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우선 이른바 ‘환경’문제는 전임 교종들도 끊임없이 그것도 시급하게 응답을 촉구하며 호소했다. 둘째로 ‘자연환경’으로 축소(환원)시킬 수도 있다. 회칙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생태’의 위기, 곧 ‘생태’에 생긴 ‘병’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회칙은 ‘생태’를 대체로 인간 환경(human environment), 자연 환경(natural environment), 그리고 사회 환경(social environment)의 종합으로, 그것들 사이의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로, 더 나아가 ‘하느님의 창조’라는 ‘실재’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비유하자면,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는 ‘협진’하자는 초대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중한 병으로 온 몸 곳곳에서 건디기 어려운 통증을 느끼는 어머니와 누이가, 하느님의 삼라만상이 살아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지금 우리에게 울부짖고 있으므로, 형제와 자녀들이 모두가 하루 빨리 모여서, 증세의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자고 다급하게 초대한다. 협진하지 않으면, 결국 ‘하느님의 기대’(회칙, 61항)를 저버려 ‘자기파괴’(55항)가 될 것이므로.

그런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교종은 초대한다. “시대의 징표를 꼼꼼하게 탐구”하여 “시대정신을 식별하고 확인”하며, “선한 영의 움직임을 선택하고 악한 영의 움직임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교회공동체의 “막중한 책임”이며, “어떤 실재들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탈 인간화의 길로 치달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권고 「복음의 기쁨」 51항)

게다가 우리는 ‘주님을 찬미하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제대에 모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느님께 봉헌한 삶, 제물은 곧 ‘주님을 찬미했던 삶’이다. 그래서 자꾸 서로 다짐한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런데 ‘주님을 찬미’하려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그러면서도 피할 수 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 하느님께 봉헌할 제물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하느님 사랑의 무수한 역작이 전시

되어 그 존재자체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 ‘이 행성’의 미래가 걸린 문제들이 ‘급속도로’ 밀려들고 있다.

그래서 교종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 행성의 미래를 [지금] 어떤 식으로 꾸릴 것인가’에 관한 새로운 대화를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의 도전과 그 인간적 뿌리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며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회칙 14항)

교종은 도전을 피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도전에 용감히 맞서고,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과정으로 그 도전을 편입시키는 길이 참된 평화, 참된 발전에 이르는 길이라 믿으며,(권고, 227항 참조) 우리 모두 실재주의자가 되자고 권고한다.(권고, 108항 참조)

물론 교종의 이 신념은 다음과 같이 인류와 하느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당신의 사랑의 계획을 돌보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뉘우치지 않으십니다. 인류는 여전히 우리의 공동 가정을 건설하는데 함께 일 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회칙 13항) 우리는 어머니와 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공동 가정’에서 ‘인류가족’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공동 숙제를 풀기 위해 가족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하려면 먼저 서로 만나야 한다. 그래서 처지를 털어놓아야 한다. “사실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기”(61항)가 그것이다. 의사가 아픈 사람을 꼼꼼하게 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종은 ‘사실들’과 함께 “지금 상황에 대한 생생한 분석”(17항)을 제시한다. “땅에서, 물에서, 공기에서 그리고 모든 형태의 생명에서 볼 수 있는 병의 증세들과 그 분석”(2항)을 말이다. 과학적으로나 일상의 경험으로 볼 수 있는 증세들은 ‘사실들’이다.

그런데 왜 그런 증세가 나타난 것일까? 몸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해서? 혹은 외부 환경 때문에? 혹은 선천적으로? 혹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처방’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회칙은 그 처방에서 양 극단이 있다고 본다. “진보의 신화를 집요하게 붙잡고 있으면서, 생태 문제들은 어떠한 윤리적 고려들이나 근본적 변화 없이도, 그리고 단순히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하나다. 이는 ‘진보’가 만병통치약이라며 먹으라는

식이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모든 개입은 이 행성에 위협일 뿐이며, 생태시스템을 위태롭게 하며, 따라서 이 행성 위에 사는 사람의 수를 줄여야 하고, 모든 형태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른 극단이다.(60항) 이는 ‘삶’이 곧 ‘죄’라는 식이다. 물론 “오염과 타락을 보여주는 몇 몇 분명한 표지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보지 않는” ‘태연한 회피’, ‘문제의 부정’, ‘무관심’도(14, 59항 참조) 있다. 양극단의 태도도, 무관심의 태도도, 병을 치료하여 증세를 없애는 길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면 왜 ‘새로운’ 대화인가? 그 이유를 다섯 가지 정도 정리해보았다. 우선, 인류는 ‘새로운 사태’를 맞았다. 인류는 “여러 면에서 인류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불균형 속에서 ‘불안’해 하고 있다.”(17,18항) 이 ‘세계적 환경의 악화’는 “50여 년 전 ‘핵 위기’에 임하여 비틀거렸을 때”(3항)의 상황과 견줄 만 하다.

다음으로, ‘환경의 악화’라는 증세를 완화하고 중병의 뿌리를 치료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나름대로 칭송할 만한 결실을 내기는 했지만(26,37,38,55,58항),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과 광대함”(15항)에 비하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환경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실효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14항)

다음으로, 지난 호에서 소개한 바대로 “방해자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인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한다. 하나는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진보와 인간 능력에 대한 비이성적 자신감”을 갖고 “보다 위험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19항) 이는 ‘인간의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로 붕괴’와 ‘세계차원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과학기술-경제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새로운 권력구조들이 우리의 정치뿐만 아니라 자유와 정의를 압도”(53항)하는 일이 벌어 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더 큰 병을 주면서 효과는 덜한 약을 주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리더십의 부재’와 ‘국제 차원이 정치적 대응의 나약함’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로를 밟을 수 있는 리더십이, 다가올 세대를 향해 편견 없이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한 관심을 갖고 지금의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없습니다.”(53항) “환경에 관한 지구 정상회담의 실패는 우리의 정치가 기술과 금융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54항)

마지막으로, “절대로 우리는 지난 2백 년 동안 우리의 공동 가정에 상처를 입히

고 학대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종은 그냥 이야기만 나누자는 것이 아니다. “관념들은 기껏해야 실재들을 분류하고 정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행동을 불러올 수” 없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이성으로 계발된 실재들”(권고, 232항)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종은 소극적으로는 “끔찍한 불의에 침묵의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36항), “하느님의 기대를 저버리지”(회칙 61항) 않기 위해서, “자기 파괴적 행동”(55항)을 멈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대지의 울부짖음과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음을 같이 듣기”(49항) 위해서 “차별화된 책임”(52항)을 짊어지기 위해서, “새롭고 보편적인 연대”(14항)의 길을 나서려 한다.

우리는 누이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가정을 보호하는 것 긴급한 도전입니다. 이 긴급한 과업에는 전체 인간 가족이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발전(a sustainable and integral development)을 함께 모색하려는 관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사태, things)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그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당신의 사랑의 계획을 돌보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뉘우치지 않으십니다. 인류는 여전히 우리의 공동 가정을 건설하는데 함께 일 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13항)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누이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왜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

지금의 발전모델은 응급 종합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메르스’가 우리 앞에 갑자기 등장했다. 사람들이 절절 땀다. 생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초 인류를 지향하는 대형 병원의 첨단 의료 기술이 있으며,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 국가의 일류 행정이 있으므로 안심해도 괜찮다는데도, 그리 절절땀다. 그러면서도 애써 태연했다.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위험하지!” 하면서... ‘실제로 기저질환과 메르스가 만나면 치명’임을 보여주었다.

지나친 단순화겠지만, 회칙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고령의 기저 질환’을 생각해보자.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약한데다가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심은 일을 하려해도 제약은 또 얼마나 많은가. 회칙의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몇 가지 실재가 바로 이 ‘고령의 기저 질환’에 해당된다. ‘인생’에서 모든 ‘생’이 결합되어 있는 ‘생태계(ecosystems)’로 확장되었을 뿐이다.

1장에서 다루는 하나의 예만 들어, ‘공동 재화’인 ‘기후’를 ‘당’ 혹은 ‘혈압’이라 해보자. 우리 몸에 ‘당’과 ‘혈압’이 있어야 하듯이, 지구에도 ‘기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과 혈압 수치’에 이상이 생기면 어찌 되겠는가? 물론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운동과 식이요법과 투약이 그것이겠다. 그런데 운동을 못할 정도로 약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식이요법을 할 처지가 못 되면, 국민건강보험제도 같은 것도 없는데 너무 가난해서 병원을 찾을 형편이 못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그냥 ‘남’의 딱한 처지에 불과한 일일까? 그래서 ‘사제’와 ‘레위’처럼 자기 할 일 있으므로,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리면 되는 것일까?

기후변화에 아랑곳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우면 냉방기를 켜면 되고, 그러려면 전력을 공급해야 하고, 그러려면 발전소를 세워야 하고,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세우면 된다고, 수 조원의 ‘핵발전소’를 세우려면 ‘돈’이 많아야 하고,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그러니까 밤낮없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냉방기’를 구입할 형편이 못 되고, 구입해도 ‘전기요금’ 부담할 형편이 못 되면 어찌할 것인가? 응급으로 가까운 공공기관에 들어가 지내면 될까?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너무 태연하다. 기후변화는 ‘온난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그 온난화가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있다. 회칙은 ‘가정법’의 문장으로 “지금의 이 추세대로 가면 비상한 기후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의 파괴와 모두에게 미칠 심각한 결과들을 제대로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인구의 1/4이 해안과 그 주변에 살고 있으며, 대도시 대부분이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해수면 상승이 극단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24항)고 걱정한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미리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우리의 첨단과학기술과 일류의 행정과 돈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충분할 테니까.

회칙은 그 심각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상한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최악의 충격은 아마도 다가올 수십 년 안에 개발 도상국가들이 겪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가운데 많은 이가 온난화와 관련된 현상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거나 혹은 다른 자연 재난들

과 맞설 수 있는 재정활동이나 자원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 변화에 동물과 식물들은 적응할 수 없으며, 그들은 [사라지거나] 이주할 수밖에 없고, 이는 차례로 사회적 약자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25항)

이제 회칙은 예상하는 심각한 상황이 ‘증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다. 마치 메르스의 증세인 고열이 있는데 바라보기만 하는 형국이다. “환경의 타락으로 악화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이주한 사람들이 수가 비극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 같은 고통에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그 무관심은 무책임이다. 최근 수 십년의 온난화의 원인은 “사람들의 활동의 결과로 배출된 온실가스의 고도집중”(22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시민사회의 토대인 “사람에 대한 책임감”(25항)을 잃어버린 표지다.

기후변화와 온난화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지난 2세기 동안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토대로 지속시켜온 인류의 발전모델이 가져온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그 증세가 ‘병의 증세’여서 문제다. 단순히 ‘메르스’정도가 아니다. 행성 전체에, 인류 전체에 그것도 미래세대까지, 사람만이 아니라 창조질서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심각한 ‘악영향’으로 나타나는 증세다.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다.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마치 지구가 ‘고령의 기저질환’ 상태로 치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지구가 겪는 고통, 사람이 겪는 고통, 피조물이 겪는 고통, 사회가 겪는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고열의 ‘증세’가 될 것이며, 그 ‘증세’에 대해 ‘회피와 외면’과 무관심과 무책임을 초래하는 그런 ‘발전모델’은 ‘바이러스’쯤 되겠다. 회칙은 지금의 ‘발전모델’을 재검토(정밀검사)하자고 촉구한다.

1. 중병, ‘지난 200년 성장과 발전모델’

1) 증세 : ‘사람의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의 고장’

지난 호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증세’를 예로 들었다. 증세의 그 악화 속도가 너무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밀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교종은 호소한다. 이 때 그나마 다행인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서 한 가지 증세가 나타나고, 그 부위에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다. 물론 ‘형편이 허락한다면’이란 전제 조건이 있지만, 해당 전문의를 찾아가 응급 정밀검사하고 원인을 찾아 진료하면 된다. 그런데 만일 그 증세가 곳곳에서, 즉 자연에서, 사람에게

서, 사회에서, 그리고 전 지구차원에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는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회칙의 1장은 그 ‘증후군’(상황)을 ‘신선한 분석’(17항 참조)으로 소개한다.

회칙은 ‘오염과 기후변화’(20-26항) 문제뿐만 아니라, ‘물과 관련된 논쟁점’(27-31항)과 ‘생물다양성의 상실’(32-42항) 문제도 함께 다룸으로써, 하늘과 땅과 물에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각각의 증세를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독자께서는 “아! 교종이 환경 전체에 관한 회칙을 냈구나! 교종이 자연보호를 호소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군!” 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누군가는 회칙을 불편하게 여기며 일부러(?) 여기까지만 읽고 싶어 할 것이다. 아마 ‘과학기술-경제 패러다임’을 맹신하여, “윤리적 고려들이나 근본적 변화”를 배제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하면, 환경문제쯤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 것이다.(60항 참조) 그러나 회칙은 이런 태도를 “투기와 금융소득 추구를 우선하려는 현재의 전 지구적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경제권력”의 시도라고 단호하게 거부한다.(56항) 이 경제 권력의 눈에는 자연도, 사람도, 사회도, 하다못해 ‘지구와 우주’도 시장의 규칙에 따라야 할 ‘상품’으로만 보일 것이다.

회칙은 ‘사람의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의 고장’(43-47항)을 심각한 ‘증세’로 제시한다. 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며 명백하다.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로서 “생명과 행복의 권리”를 누려야 할 “존엄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칙은 “환경의 악화와 지금의 발전 모델과 내다버리는 문화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친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다.(43항) 회칙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살기에 건강하지 않은 도시”환경과 “도시의 불균형성장과 무분별 성장”이 그것이다. 도시 시민들은 “시멘트와 아스팔트와 유리 와 금속 속에 갇혀 ... 자연과의 물리적 접촉을 박탈당한다.”(44항)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도시의 비대화에 따르는 문제들은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대중교통만 예로 들어보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다. 정원과 정원초과, 만원과 혼잡과 콩나물시루는 점잖은 표현이다. ‘지옥철’이라는 끔찍함을 드러내는 표현도 있다.

다음은 우리도 ‘사회적 고장’을 금세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도시와 비도시에서, 특정 공간의 사유화로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닌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은 제한됩니다. ... 이른바 도시의 “보다 더 안전한” 지역에서는 정성들여 아름답게 가꾸곤 녹색 지대가 있습니다만, 사회가 버릴 수 있는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즉 좀 더

많이 감춰진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흔한 일입니다.”(45항) 우리의 경우, 같은 도시라도 치안부터 교육과 사회복지 급여와 심지어는 도로의 청결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불균형과 불평등은 거주지역의 ‘땅값’에 비례한다. 범위를 넓혀, 도시 시민의 쾌적함을 위하여 비도시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우리의 비윤리적 핵에너지 정책도 ‘사회의 고장’의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지난 2백년의 성장이 언제나 통합적 발전과 삶의 질 개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표지들입니다. 그 가운데 몇 몇 표지들은 실제 사회적 쇠락, 즉 통합의 유대들과 사회적 결합의 유대들이 조용하게 파열하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합니다.”(46항)

회칙은 ‘자연 환경’의 타락뿐만 아니라 인간 환경과 사회 환경의 타락을 ‘증후군’으로 제시하며, ‘지난 2백년의 성장과 발전모델’을 중한 ‘병’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2) 증세 : 지구적 불평등, 미미한 인식, 왜곡된 믿음, 생태적 부채의식과 차별화된 책임감 부재

회칙은 1장에서 현재 우리의 ‘공동 가정’에서 목격할 수 있는 ‘증후군’을 소개하고 있다. 회칙은 자연(하늘과 땅과 물)과 사회에서 분명히 목격할 수 있는 ‘사태’들을 소개한다. 그 범위를 넓혀 마지막으로 ‘지구촌 차원의 불평등’(48-52항)을 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칙은 불편한 모습 세 가지를 소개한다.

1. 인간과 사회와 환경의 타락은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그 타락의 대가를 수십억에 달하는 “이 행성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48항)이 희생과 고통으로 치르는데도, 그에 대한 인류의 인식은 너무나 미미하다. 회칙은 “배제된 이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국제 정치적 논의”에서 마지못해 다루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회의를 다 끝내고 회의실을 정리할 때 불태워 버릴 장작더미의 “맨 아래 처박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개탄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회칙은 그 원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과 의견 작성자들과 소통 매체들과 권력 중추들이, 배제된 이들의 문제를 직접 접촉할 일이 거의 없는 부유한 도시 지역에 있다는 사실, 즉 사회적 약자와 멀리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들은 안락하게 삽니다. 그들은 ... 즉 세상 인구의 대다수가 도달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

에서 [모든 문제를] 추론합니다.”(49항)

2. 회칙은 ‘지구촌 불평등’ 문제를 대하면서 ‘소수의 사람’이 “문제들의 직시를 거절하는 방식”과 “현재의 분배 모델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 행성은 소수의 사람이 소비한 후 생긴 폐기물조차 다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 어쩔 수 없이 자기들만.... 소비할 권리(the right to consume)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50항)
3. 회칙은 우리가 거의 생각해보지 못한 개념, ‘생태적 부채’와 ‘차별화된 책임’을 소개한다. ‘생태적 부채’와 관련해서는 아파레시다 문헌을 인용한 다음 내용만 소개해도 금세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 기업들은 발전된 나라들 혹은 소위 제1세계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여기서 합니다. 그 기업들이 철수한 다음에 남겨놓는 것은 실직, 버려진 마을들, 매장 자원의 고갈, 산림 벌채, 농업과 지역 목축업의 황폐화, 오염된 강... 따위와 같은 막대한 인간적 환경적 빚들 뿐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자본을 늘립니다.(51항)

‘차별화된 책임’을 회칙은 미국 주교들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흔히 보다 더 힘 있는 이해집단에 의해 지배되는 토의에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무너지기 쉬운 사람의 요구”에 더 많이 주목하는 것(52항)이라고 설명한다.

우리의 ‘문제’를 보자. 첫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다. 사회적 약자와 물리적 접촉을 하고 있는가? 둘째, 도시와 비도시 사이의 심각한 불평등을 본다. 도시 시민이 배출한 생활 쓰레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시 시민과 산업분야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어디에서 생산되며, 어느 지역을 거쳐서 오는가? 셋째, 성장은 ‘막대한 인간적 환경적 빚’을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 떠맡기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힘 있는 이해집단’의 몫만 불리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초주검이 되어 내버려진 이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린” “사제와 레위”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다. 물론 우리의 삶과 사회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으면,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그렇게” 해야 한다.(루카 10,29-37 참조)

2. ‘지난 200년 성장과 발전모델’과 증후군

1) 울부짖음을 초래하면서도 귀를 막는 이들은 누굴까?

회칙은 각 장마다 고유한 주제와 접근법을 갖고 있다고 밝힌다.(16항) 이제 1장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1장은 ‘오늘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자는 초대라 할 수 있으며, 그 접근법으로는 ‘생생한 최신의 과학적 분석’(17항)이라 할 수 있다.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로는 오늘날의 상황에는 ‘자연(하늘, 땅, 물,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회와 전 지구’의 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소개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 사이의 정직하고 참된 토론을 호소하는 셈이다.(61항) 둘째는 단순히 과학적 정보를 널리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표’가 따로 있다. 즉 ‘고통스러운 자각’과 ‘인격화’ 그리고 ‘행동’이 그것이다.(19항 참조) 회칙은 이를 ‘윤리적·정신적 여정’이라 한다.(15항) 두가 참여하는 대화에 대한 호소이면서, 동시에 ‘말잔치’에 대한 경계라 할 수 있다.

최신의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오늘의 상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급속한 변화와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한 병의 증후군들과 불안(18항 참조), ②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사태의 악화와 악순환(20항), ③ 내다버리는 문화(22항)와 무관심의 세계화(25항), ④ 이미 행성이 수용 할 수 있는 한계들을 넘은 인간의 모험적 착취(27항)

그러면, 왜 이런 상황으로 치달게 되었을까? 회칙은 이를 “진보와 인간 능력에 대한 비이성적 자신감”(19항)에서 찾는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를 잘못 인도된 근대정신, 즉 ‘인간중심주의’와 ‘상대주의’에서 그 사상적 배경을 찾는다. 이를 우리는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의 충족을 행복과 발전이라고 보는 태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학자들은 이를 ‘공리주의적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정도로 정리할지도 모르겠다.

회칙은 현재 상황을 함께 보자고 초대하지만, 격렬한 반발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정직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다. 누가 반발할까? 회칙은 1장 곳곳에서 시사하고 있는데, 참된 ‘윤리성과 영성이 부재한’이란 수식어를 붙여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대로 열거한다.

‘기업의 이해관계’(20, 34항), ‘일부 더 많은 자원과 사회적 권력이나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26항), ‘폐기하고 내다버리는 습관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한 곳’(27

항), ‘물 자원을 사유화하여 시장의 규칙에 지배를 받는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려는 이들’(30항), 물을 통제하려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31항), ‘생명(생활)의 원천들을 비이성적으로 다 먹어치우는 경제 그룹들’(32항), ‘빠르고 쉬운 이익을 쫓는 이들’(36항), ‘세계적으로 거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들’(38항),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도달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에서 [모든 문제를, 배제된 이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추론’하는 지도자들(49항), ‘소수의 사람들만 소비할 권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 이들’(50항), ‘발전된 나라들 혹은 소위 제1세계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일을’ 저개발국가에서 하는 ‘다국적 기업들’(51항), ‘정보를 조작하면서까지 정치를 지배하는 과학기술과 금융’(54항), ‘경제와 과학기술 사이의 동맹’(54항), ‘경제 권력들’(56항), ‘강력한 금융이익집단들’(57항), 지난 2세기의 ‘진보의 신화를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이들’(60항)

이를 정리하면, “방해자(저항과 관심 결여)의 태도는, 믿는 이들에게도 그런 태도는 있는데, 문제의 부정에서부터 무관심, 태연한 회피 혹은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맹목적 자신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라 할 수 있다.(14항)

그러는 사이, 인류는 ‘사회적 부채’(30항), ‘막대한 인간적·환경적 빚들’과 ‘생태적 부채’(51항)를 눈덩이처럼 불려 떠넘긴다. 미래의 행성에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자연’과 ‘사회’와 ‘사람’에게도 말이다. 물론 현재의 대지와 사회적 약자도 울부짖는다.(49항) ‘불쌍한 우리’(2항)은 누구일까?

2) 누가 울부짖으며, 왜 귀를 막아서는 안 되는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가?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56항)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인간 활동의 목표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있기 때문”(61항)이다. 그러나 “맑은 정신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34항) 세상이 황폐화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누이가 우리에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이’는 대지를 지칭한다. 회칙은 그 ‘대지’가 ‘불쌍한 우리 가운데서’ “가장 심하게 학대를 받고 내버려졌다.”(2항)이라고 한다. 우리가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폐기하여 아무데나 내다버린 일회용품을 연상케 한다. 그러면 ‘불쌍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회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최악의 충격을 겪을 개발도상국들과 그 곳에 사는 사회적 약자들과 식물과 동물들’(25항), ‘아프리카 대륙’(28항, 51항), ‘강과 호수와 바다’와 ‘안전한 물을 구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29항), ‘수십억의 인구’(31항), ‘멸종할 수천종의 동식물’(33항), ‘포유동물과 새들과 곤충들’(34항), ‘주권을 침해받는 (남미의) 개별국가들’(38항), ‘이 행성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48항)이 바로 ‘불쌍한 우리’라 할 수 있다. ‘불쌍한 우리’가 울부짖으며, 충분히 죽었으며, 아직도 계속 죽어간다.

어떤 이들은 ‘생성소멸’이 이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태연히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자연’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해 유발된 울부짖음이고 죽음이고 멸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래 그 존재 자체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고, 우리에게 줄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이다.(33항 참조)

희칙은 ‘재앙을 개괄’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우리 마음이 크게 움직이기를 기대한다.(15항) ‘인간의 활동’으로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만이 아니라(61항 참조), ‘하느님과 하느님 계획에 대한 신뢰’ 때문이기도 하다.(13항)

3) 왜 귀를 막고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가?

소극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오늘의 상황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회피하거나 숨길 수 없는 문제들’(18항)이며, “끔찍한 불의에 대한 침묵의 목격자”(36항)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여태까지의 “과학기술-경제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새로운 권력 구조들이 우리의 정치뿐만 아니라 자유와 정의를 압도할 수도”(53항) 있으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33항) 없다. 물론 우리는 ‘생태적 부채’(50항)를 갚아야 하고, ‘차별화된 책임’(52항)을 이행해야 한다. 보다 직설적으로는, 여태까지 지속시킨 ‘인간들의 자기 파괴적 악행을 고안하는 방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59항)

적극적으로 성찰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새롭고 보편적인 연대’(14항)와 ‘단 하나의 인간 가족’이라는 확신(52항)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관대함과 연대와 돌봄의 몸짓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58항)이다.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기대’(61항)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희칙은 묻는다. “이 시점에 모두를 권력에 집착하도록 꾀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모든 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급박했고 또 필요했을 때,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무능했던 것으로 기억될 뿐인데도, 모두를 그 권력에만 집착하도록 꾀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57항)

제2장 창조의 복음

1장에서 교종은 신뢰할 만한 과학적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지금 우리의 공동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개한다. 이는 교종이 “지루하고 추상적”(17항)인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종은 사도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실재가 관념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회의 사람들에게 ‘실재주의자’가 되라고 권한다. 1장은 교종이 ‘실재’를 놓고 모든 사람이 특히 과학자 및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진실되며 공개적인 토론을 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201항 참조)

교종은 인류가 직면한 사태(도전)의 급박함과 엄중함과 복잡함(15항)을 “고통스럽게 자각”하여 “자신의 인격적 고통으로 변환”(19항) 시킬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최악의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시 선한 것을 선택하고 …,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새로운 경로”(205항)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으로, ‘공동가정을 돌보는 일’에 관한 실효적인 대화와 토론을 긴급히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교종은 그 대화와 토론의 자리에서 이 회칙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화와 경험과 재능을 갖고 참여하고 협력”해서 구축해야 할 “새롭고 보편적 연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14항)

‘창조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인 2장은 간단히 ‘유대-그리스도교 전통’(15,76,78항)에서 이해하는 ‘창조’는 ‘세상’이라 할 수 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이해하는 창조 및 세상으로 서술해도 될 것을, 그리하지 않은 이유 하나는 다음과 같이 모든 종교들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행성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스스로 믿는 이들이라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종교들 사이의 대화를 재촉해야 합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존경과 형제애의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201항)

다른 이유는 회칙 전면에 걸쳐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지난 2세기에 걸쳐 세상을 이끌어 온 과학기술패러다임의 행적’에 대한 반성(특히 3장 참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지난 2백년 동안 우리의 공동 가정에 상처 입히고 학대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서 이런 재앙에 맞설 수 있는 문화가 … 지도력이 … 법적 틀이 없습니다.”(53항)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다음의 진술에서 일단의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정치는 경제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도 효율성만 따르는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189항) 3장에

서 밝히고 있지만, 오늘날 재앙의 뿌리는 지난 2세기의 근대정신과 닿아 있으며, 그 근대성은 절대주체로서의 인간관과 단순한 객체로서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기술적 패러다임을 절대화했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창조주 혹은 종교들을 밀어내 버리거나 하위문화쯤으로 간주하고 있다.(62항)

그러나 교종은 과학과 종교가 실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을 뿐, 서로 생산적이며 심층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믿으며,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62항)

회칙의 2장은 “인류와 세상에 유익한” 즉 “해방의 경로를 모색하는” 이 대화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와 확신을 제시한다. (64항)

회칙 2장의 소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 신앙이 비추는 빛(63-64항), II 성경의 지혜(65-75항), III 우주의 신비(76-83항), IV 창조의 조화 안에 있는 각 피조물의 메시지(84-88항), V 우주적(보편적) 친교(89-92항), VI 재화의 공동(보편)목적(93-95항), VII 예수님의 눈길(96-100항)

우선 ‘성경의 지혜’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할 내용들 몇 가지만 소개한다.

- 1 (구약성경은) 인간 실존과 그 역사적 실재를 ‘관계’로 이해한다. “인간의 생명(생활)은 하느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 대지(세상)와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 세 관계는 근본적인 것으로서 서로 밀접하게 얽여 있다. 이 세 가지 결정적 관계는 인간 안팎에서 파괴되며, 이 관계의 결렬이 죄이다.”(66항) 회칙은 성경에서 밝히는 이 관계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동시에 어떻게 그 관계들이 파괴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웃과 관계가 파괴될 때, 어떻게 그것이 하느님과의 관계와 땅과의 관계는 물론 인류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한다. “이웃과 적합한 관계를 가꾸고 유지해야 할 의무를 경시하는 것, 즉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한 돌봄과 보호를 경시한 것은 나와 나 자신, 나와 다른 이들, 나와 하느님, 그리고 나와 대지와 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관계들이 무시될 때, 즉 정의가 더 이상 땅에 남아 있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생명(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노아의 이야기에서 봅니다.”(70항)

2. “단호하게 배격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 인간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에게만] 땅을 지배하라고 했으므로, 이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인간의 절대 우월(지배)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입니다.”(67항) 이를 회칙은 ‘왜곡된 인간중심주의’(69항)라고 비판한다. 이 왜곡된 인간중심주의는 “창조주와 인류와 전체로서의 창조(피조물) 사이의 조화”를 붕괴시켰는데, “우리가 주재님께 하느님의 자리를 취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한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66항)에 다름 아니다.
3. 그렇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쇄신)의 기회를 주신다.(71항) 하느님께서 재촉하시는 이 쇄신의 삶에는 “창조주의 손으로 자연에 새겨 놓은 리듬을 되찾고 존중하는 것”(71항),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찬미(72항), 하느님께 대한 관심으로 얻어야 할 새로운 힘(73항)과 희망(74항)이 포함되어 있다.
4. “성경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분과 창조하신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의 창조행위와 구원행위는 거룩한 행동 방식으로 밀접하게 그리고 분리할 수 없이 결합되어 있습니다.”(73항)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해방자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야말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지상의 권력들을 숭배하는 것을 종식시키는 방식”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을 종식시키는 방식”이다.(75항)
5.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당국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창조질서의 보전과 참다운 해방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같은 사회의 제 분야와 그리스도교는 실효적인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는가? 우리 사회의 다른 종교 혹은 종파와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는가? 혹시 회피 내재주의의 쓴 독을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곡된 (이기적)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하느님(원천)께 돌아갈 때(전환과 회개), 그럼으로써 파괴된 관계(자신, 이웃, 세상)를 회복하여, ‘쇄신의 삶’을 살 때 인류와 세상에 유익하다. 물론 용기가 필요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와 희망이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는가?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실 수도 있으며, 모든 형태의 악을 극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의는 무적이 아닙니다.”(74항)

Ⅲ. 우주의 신비(76-83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성찰할 수 있다.

1. 창조(삼라만상)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계획과 관계가 있는 실재이기에,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고유한 자리를 차지한다. 반면에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자연은 인간의 연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일종의 체계로 간주된다.

이는 사물을 이용대상으로만 삼을 것인지,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발견할 이웃으로 볼 것인지, 인간의 태도에 있어,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은 훌륭한 길을 제시한다.(76-77항)

2. 그러면서도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은 자연을 ‘탈신화화’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인간은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이 갖는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능력을 계발할 의무”를 갖는다.

이 책임과 의무는 ‘무제한의 물질적 진보라는 근대의 신화’와 양립할 수 없다.(78항)

3. 인간은 자유롭게 지성을 적용하여 역사에서 자유와 성장과 구원과 사랑을 열매 맺을 수도, 타락과 상호파괴를 향해 치달을 수도 있다. 이는 ‘개방되고 상호 소통하는 체계들로 되어 있는 우주관’을 전제한다.(79항)

이는 동시에 오늘날 인류가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을 향한 길인지 죽음을 향한 길인지 진지하게 물을 것을 요청한다. 사실 어느 시대나 언제나 철저히 ‘생명의 길’을 걸었다고 기억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의 구한말은 일제 강점을 향해 갔으며, 일제 강점은 해방과 한국전쟁의 길로 향했으며, 산업화는 독재의 길로, 그렇게 어둠의 길로 걷게 한 왜곡된(?) ‘지성의 적용’이 있었다. 물론 그 속에서도 참된 해방과 자유의 길을 가려는 무수한 시민의 참된 지성의 적용으로 실천한 조용한 몸짓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4. 발전이 필요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악들이나 위험들이나 고통들”을 마치 “해산의 진통”으로 삼아, 당신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동시

에 인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80항) 인간은 하느님이신 Thou와 대화를 나누는 thoh로서, 결코 객체 상태(이용의 대상, 타자)로 환원될 수 없는 주체다.(81항)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성찰하게 된다. 하나는 세상의 악들과 위험들과 고통 앞에서 보이는 교회의 패배주의가 그 하나이며, 모든 인간을 타자와 시키는 자기중심주의가 다른 하나다.

5. 아무리 인간이 하느님의 ‘thou’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다른 존재들을 인간이 임의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로 보는 것 역시 잘못이다. 그렇게 본다면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게 되며, …조화와 정의와 형제애와 평화라는 이상”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82항) 우주의 궁극적 목적을 우리 사람 안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느님의 충만함과 그 충만함을 실현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된 성소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무책임하게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이 성찰할 것 하나는, 신앙의 지나친 개인주의화 및 내재화라 할 수 있다. 사회와 역사와 미래보다는 현재의 자신의 마음(정신) 상태로 신앙을 제한하려는 태도가 그것이다. 둘째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승자독식’현상인데, 이를 우리는 ‘무제한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중립적 용어로 그 악을 은폐한다. 셋째 모든 피조물을 무책임하게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현상인데, 우리는 이를 언제나 ‘성장’이라고 포장하여 강요한다.

“모든 피조물은 초월적 충만함(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 목적지, 즉 하느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83항) 공동의 가정의 모든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 순례의 여정을 하고 있다. 이 여정에서 우리 인간은 여정의 ‘표지’이며 생명의 ‘샘물’이 되라고 거룩한 부름을 받았다. 이는 마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공론 곧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 중인 인류의 표지가 되어야 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론을 상기시킨다.

IV. 창조의 조화 안에 있는 각 피조물의 메시지(84-88항)에서 성찰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심지어 미래에 존재할 그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

느님께서 일구신 ‘공동의 가정(home)’의 ‘한 가족(family)’인 셈이다. 마땅히 다수성과 다양성을 전제하는 이 가족의 각 구성원은 그 나름의 자리와 개성과 가치를 지닌다.(86항 참조) “여분의 것은 없습니다.”(84항)

이는 흔히 ‘다수성’을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으로 구별하려는 우리의 태도와 ‘다양성’과 ‘차이’를 곧잘 차별로 환원시키려는 우리의 태도를 경계한다.

2. 게다가 이 다양성과 다수성은 모든 피조물이 상호 의존하고 보완하며 서로에게 기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 관계 속에서 각 사물이 지닌 의미와 중요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동시에, “무진장한 하느님의 부유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86항)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기를 바라신 가르침(메시지)”(85항)을 갖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느님의 이 메시지와 현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생태적 덕들(the ecological virtues)을 계발하는 것”(88항)이다. 그 덕으로 우리는 피조물들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창조 안에 그 나름 고유하고 적절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이는 소극적으로는 왜곡된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 현존의 자리로 인정함으로써 ‘우주적(보편적) 친교’의 길로 나서게 한다.

V. 우주적(보편적) 친교(89-92항)

지금까지 우리가 ‘친교’에 관해 이야기할 때, 보통 동류 사이의 친교,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를 의미했다. 신앙의 차원에서는 성삼위 하느님의 친교와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친교에 관해서 말했다. 그러나 회칙은 다음과 같이 ‘친교’의 차원을 확장한다.

1. 모든 피조물이 우주적 가족(universal family) 이다. 물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이다.(89항 참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만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그 가치가 수반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이 확신은 다른 피조물을 책임 있게 대해야 마땅하며, 더더욱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엄청난 불평등에 대해 특별히 분노해야”하는 근거가 된다.(90항)

회칙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실천적으로, 우리는 분노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나은 인간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계속해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마치 그들이 더 위대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는 듯이 말이다.(90항)

2. 그러면서, 회칙은 현재 환경 운동 일부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비판한다. “인신매매에 무관심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혹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을 하면서, 위험에 내몰린 [동식물] 종들의 거래와 맞서 싸우는 것은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91항) 이렇게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사회문제를 풀겠다는 확고한 투신’은 결합되어야 한다.

회칙이 강조하고 있는 이 보편적 친교는 환경,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는 지나치게 경신례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3. 마침내 회칙은 “평화와 정의와 창조의 보존은 확실히 상호결합되어 있는 세 주제”이며,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는 한 이 주제들은 분리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다뤄질 수도 없다”고 천명한다. 하느님의 사랑이 사람 사이 뿐만 아니라, 형인 태양과 누인인 달과 아우인 강과 어머니인 대지”(92항)와, 곧 모든 가족을 결합시키는 ‘보편적(우추적) 친교’의 힘이다.

VI. 재화의 공동(보편) 목적(93-95항)

1.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생소한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 바로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리다. 우리에게는 철두철미 재화의 사적 소유와 임의의 처분권리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창조주께 대한 충실성”(93항)을 의심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적재화의 권리를 절대적이며 불가침하다고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톨릭교회가 “사회적 담보”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신자들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자연스럽게 “그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방식으로 사적재화가 사용되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교회의 가르침은 적어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설 자리가 거의 없다. 오히려 “부당한 습관들”이야말로 능력으로 칭송받는 형편이다.(93항) “인간의 권리들 -인격적 사회적 권리들, 경제적 정치적 권리들, 민족 및 국가의 권리

들- 을 존중하지 않고 증진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성장만을, 그것도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발전”이라고 내세우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자연스럽지만, 회칙은 이를 “가치있는 것이 못된다”고 비판한다.(93항)

만일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창조주께 대한 충실성”(93항)을 의심해봐야 한다.

2. 회칙에서 어쩌면 도발적으로, 혹은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몇 몇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 자리에서 발견된다. 회칙은 뉴질랜드의 주교들의 가르침을 인용한다. “가난한 나라들과 미래 세대들한테서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강탈하는 그 비율로 인류인구 20%가 자원들을 소비하는” 이 때 “너는 살인하지 못한다.”는 하느님의 계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가?(95항) 이 대목은 “우리는 생산된 식량 가운데 거의 1/3 가량이 내버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버려질 때마다 그것은 마치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에서 식량을 훔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50항)의 다른 표현이다. 굳이 설명과 성찰이 필요 없다. 어찌 “고통스러운 자각”(19항)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VII. 예수님의 눈길로(96항-100항)

1.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강조하셨으며(96항),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에 주목하셨으며(97항), 창조(삼라만상)와 완전한 조화 속에서 사셨으며(98항) 인간의 노동을 거룩하게 하셨다(99항) 예수님의 삶에서 “건전치 못한 이원론”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역사의 과정에서 일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건전치 못한 이원론을 펼쳤으며 복음을 왜곡했다.” 우리의 경우를 보자. 우리는 “세상의 육신과 세상의 일과 세상의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내세우면서 정작 실제로는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2. 신약성경은 지상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한 창조의 목적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과 보편적 주권과 영원한 현존에 대해서도 고백한다. 그리하여 믿는 이는 ‘마지막 때’에까지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비로소 그 옛날 “그분께서 인성의 눈으로 관상하시고 감탄하셨던 별판의 꽃들과 참새 몇 마리들은 이제 그분의 빛나는 현존이 스며든 꽃들이며 새들입니다.”(100항)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떻게 사람과 자연과 사회와 세상을 착취하고 학대하며 함부로 다뤄 상처를 입힐 수 있겠는가? 혹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제1장) 태연하거나 회피할 수 있겠는가? 고통스러운 자각이 없고 그 자각을 인격적으로 변환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 무엇이든 하지 않는다면, 불신앙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창조 범위 안에 있고”, “자연과 창조주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64항)

제3장 생태적 재앙의 인간적 뿌리들

1. 인간의 기술적 무모함으로 십자로(재앙의 위기) 앞에 도달한 인류,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어 가던 길을 잠시 멈춰

“인간 활동의 목표들, 결과들, 전반적 맥락들과 윤리적 한계들을 끊임없이 재고합시다”(131항)

가야 할 목적지와 경로를 분명히 알면 그 걸음이 편안하다. 새삼 무수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비록 거친 도시환경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간판 속에서 톡 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지나치는 사람의 얼굴도 찬찬히 바라볼 수 있다. 도로 위의 위험스러운 장애물을 볼 수도 있다. 비도시의 한적한 길이라도 길가의 풀 한포기 꽃 한 송이에도 새삼 눈길을 줄 수 있으며, 풀벌레 소리와 새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몸만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풍요로워진다.

그러나 가야 할 목적지와 경로를 모른다면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몸은 불편하고, 마음은 불안하다. 그러다가 십자로를 만나기라도 한다면 그 불편과 불안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정표마저 없다면...

회칙은 이 시대를 그렇게 이정표 없는 ‘십자로’에 비유하고 있다.(102항) 그 ‘십자로’ 앞에 서 있는 인류의 당혹감(불안)의 심각함을, 제3장의 제목처럼, ‘생태적 재앙’으로 기술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여기서 거듭 확인해야겠다. ‘회칙’에서 말하는 ‘생태(ecology)’는 ‘자연환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이다. 필자의 짧은 경

험에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우리는 ‘자연’과 ‘생태’를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회칙이 오늘날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한 ‘환원(축소)주의’라 할 수 있다. 그 같은 태도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구촌 체계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들과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못 보게] 가리는 것”(111항)이라 할 수 있다. 회칙의 1장에서 밝힌 것처럼, 생태는 하나의 ‘공동 가정’이다. 그 가정에는 대기, 물, 땅과 다양한 생물, 사람, 사회, 그리고 지구촌 자체가 서로 결합하여 상호의존 및 상호작용하며 살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실재(reality)다.

그러니 오늘날 공동가정이 직면한 ‘생태적 재앙’이란 자연환경의 훼손 정도로 축소해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공멸의 위기에, 곧 가정 자체가 파멸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칙은 묻는다. 어쩌다가 이 ‘공동의 가정’이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회칙은 그 직접적 원인을 “지난 2세기” 동안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하나인 인간이 감행한 “기술적 무모함”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 무모함을 감행하게 된 ‘근본적인 무엇’을 제3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오해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 회칙의 1장과 마찬가지로 3장은 생태적 재앙(증후군, symptoms)과 그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기술적 무모함’(102항)과 ‘무차별적이며 일차원적인 기술주의의 패러다임’ 추종(106항)을, 그리고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왜곡된 ‘근대의 인간중심주의’를 고발하고 폭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회칙이 밝히고 있듯이, 교종은 소극적으로는 “변화의 (급)속도”를 줄이자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실재들(realities)’을 보자”(114항, 116항)고 제안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칙은 “윤리적 함의에 관심을 기울이는”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폭넓은 토론”을 촉구하고 있다. 그 토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음의 인용은 분명히 보여준다. “생태의 문화가 오염, 환경적 부패와 천연자원들의 고갈이라는 당장의 문제들에 대처하는 일련이 부분적 응급 대응들 짬으로 환원(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태의 문화에는 사물을 보는 차별화된 방식, 차별화된 사고방식, 차별화된 정책들,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차별화된 생활방식과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111항) 교종은 “과감한 문화적 혁명의 길”로 나서자고 호소한다.(114항)

2. 과학과 과학기술: 창의성과 권력, 기쁨과 흥분, 위험과 공포 그 사이의 극단의 모험사이에서

대중매체가 특정 기업들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예고 기사를 내보내고, 출시일이 되면 전날부터 매장 앞에서 밤을 새워 기다린 이들을 화면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 걸쳐 그 신상품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생생하게 강조하며 보도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 상품에 담긴 새로운 기능들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다. 이 자리에서는 언론사인가 특정 기업의 홍보실인가를 따지는 일은 제쳐놓자. 하여튼 그렇게 ‘신상품’ 곧 ‘변화’는 세상을 휩쓸 기세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일부 사람들은 열광한다. 사실 기뻐하고 흥분할만한 변화가 얼마나 많은가? 그 변화의 영역과 규모와 속도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앞에 소개한 사례는 ‘정보통신’분야의 ‘휴대용 단말기’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쉽게 병원을 찾는다. 대도시의 대형 병원에는 ‘여기 아픈 사람은 죄다 모였네!’할 정도다. 그 곳에서도 붐비는 정도로 결코 뒤쳐지지 않을 곳이 아마 ‘진단방사선과’가 아닐까 한다. 핵기술을 ‘의료’분야에 적용한 결과다.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발달한 대중교통수단 덕분일 터이다. 특히 고속전철과 지하철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속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놀라움은 혀를 내두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핵기술을 ‘전력생산’ 곧 ‘산업’분야에 적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인류는 핵기술을 ‘평화롭게’ 이용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종은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오늘날 우리는 무수히 많은 변화 물질이 일어난 지난 2세기의 수혜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발전을 기뻐하고 그 발전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놓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에 흥분하는 것은 정당합니다.”(102항) 물론 과학과 과학기술이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을 때”(103항)와 “건전한 윤리와 문화와 영성”(105항)이 있을 때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게 기뻐하고 흥분할 수만 있을까? 정보통신분야와 핵산업분야를 예로 들었으니, 그 ‘치명적 부작용(?)’을 살펴보자. 공교롭게도 다른 대형 사건으로 묻혔지만 한동안 온 사회를 흔들었던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 막강 권력기구라 할 수 있는 곳에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이 때 개입의 수단으로 채택한 것이 ‘정보통신기술’이었다. 심지어 이 ‘정보통신기술’ 덕분에 사람들은 ‘권력’으로부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다룬 책까지 나왔다. 어떤 이는 이를 두

고 ‘감시사회’라고 부른다. 교회는 ‘뉴스 미디어’를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들이 조종하거나, 여기에 통치활동과 금융, 정보기관의 유착까지 더해지면 ‘전체 민주주의 제도’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가르친다.〔간추린 사회교리〕, 414항)

전 지구를 공포에 몰아넣었고, 사람들은 잊고 지내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 악영향을 예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사건이 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 어느 기업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건이다. 그 때 언론에 ‘안전신화’라는 말은 빠짐없이 등장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건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도시 상공 5백 미터에서 폭발시켜 한꺼번에 무려 20여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핵폭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인류를 ‘공포’로 내몰았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이든 핵기술이든 인간의 창의성으로 만들어낸 과학과 과학기술의 “경이로운 산물”(102)이다. 그런데 “이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그 지식과 재능을 이용할 경제적 자원을 가진 사람들”의 “막강한 권력”이 “극소수”의 손에만 쥐어졌다면, 게다가 그 “막강한 권력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래도 마냥 기뻐하고 흥분할 수 있을까? 교종은 인류가 과학과 과학기술을 갖고 이처럼 “극단의 모험”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104항)

3. 기술주의 패러다임의 세계화

- 자연, 사람과 사회, 경제와 정치를 무차별적으로 지배하는 기술주의

“세계화된 과학기술의 정신에 굴복하지 맙시다.
모든 것의 의미와 목적에 의문을 품읍시다.”(113항)

지난 호에서 다룬 회칙의 내용은, 인류가 그 고유의 창의력과 그것으로 발전시킨 과학과 과학기술 덕분에 마침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과, 역설적이게도 인류는 ‘기쁨과 흥분’ 그리고 ‘위험과 공포’ 사이에서 극단의 모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회칙은 인류가, 정확히는 소수의 막강한 권력자들이 인류를 상대로, 그렇게 무모한 모험을 하고 있는 근본원인을 ‘무차별적이며 일차원적인 패러다임’에서 찾는다.(106항) 이 패러다임에서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외적 ‘객체’로부터 철저히 분

리시켜 극단으로 찬양하는데, 여기서 인간과 물질적 객체 사이는 더 이상 원래의 우호적 관계에서 이탈하여 ‘대립적 관계’로 진입하게 된다. 인간은 과학과 과학기술로 외부의 객체를 지배하고 소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추출하려고” “이 행성을 끝없이 쥐어짜서 말리려” 대든다. 마침내 우리는 세계라는 실재에 대한 지배와 소유와 무한 추출을 ‘발전’, ‘진보’, 혹은 “무제한의 성장”이라고 믿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회칙은 단도직입적으로 ‘거짓말’과 ‘거짓개념’ 때문이라고 밝힌다. 회칙은 이 거짓에 기초한 패러다임을 무차별적이며 일차원적인 ‘기술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교종의 회칙은 그 색깔이 분명하다. 이 기술주의 패러다임에 따른 ‘무제한의 성장’이라는 발상이 “경제학자들과 금융업자들과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발상과 권력(힘)의 결합을 다음과 같은 ‘거짓말’과 ‘거짓 개념’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분명하게 비판한다. “지상의 재화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 “무한한 양의 에너지와 자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들을 재빠르게 재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연 질서의 착취에 따른 부정적 결과들을 쉽사리 경감시킬 수 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 경제학자들과 금융업자들과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인류가 무심히 기대하고 있는 그 ‘무제한의 성장’이나 ‘인류의 번영’이 거짓말과 거짓 개념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말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의 악화를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칙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환경의 악화’는 하나의 표지일 뿐이라고 단언한다.(107항 참조)

회칙은 기술주의 패러다임이 사람과 사회까지 종속시켰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채택하고 다른 문화적 패러다임을 촉진시키겠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동기가 인류의 이익이나 참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 즉 권력에 있다고 고발한다. 파르디니를 인용한 내용이 오늘의 인류의 처지를 대변한다. “인간은 자연도 박탈당하고 인간본성도 박탈당한 요소[부품]들로 된 [기계]의 손잡이를 움켜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남아있을까?(108항 참조)

기술주의 패러다임은 경제생활과 정치생활마저 지배하려 한다. [경제의 실질적

토대를 무시하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압도하게 된 것도, 세계적 금융재앙 앞에 속수 무책인 것도, ‘낭비적이며 소비주의적인 초발전(superdevelopment)과 탈인간화의 강탈(dehumanizing deprivation)이 지속되는 상황’이 공존하는 것도 기술주의 패러다임이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을 지배했기 때문이다.(109항 참조) 회칙이나 교종이나 사방에서 반대 받는 표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어느 월간지는 교종을 두고 ‘악마의 배설물에 맞서는 교종’이라는 제목의 글을 1면 톱으로 다루기까지 했다.

교종은 “과감한 문화적 혁명의 길로 나서는 일이 시급히 필요” 하며, “모든 것의 의미와 목적에 관해 의문을 품자”고 호소한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책임과 가치와 양심의 발달과 동반하지 않고”(105항) 있으며, “과학적이며 과학기술적인 진보가 인류와 역사의 진보와 동일화될 수 없기”(113항) 때문이다.

4. 근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초래한 재앙과 그 결과

1) 생태 재앙의 뿌리: 왜곡된 인간본성(인성), 왜곡된 인간관계(사회적 차원)와 하느님과의 관계(초월적 차원)

교종은 ‘일단 멈춰서’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을 맑은 정신으로 바라보자고 초대한다.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의 절규를 듣자고 한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추락하고 사회가 고장 나며, 전 지구 차원의 불평등이 악화일로로 치달는 상처를 고통스럽게 보자고 한다.(제1장 참조)

이 절규와 상처(증후군, symptoms)를 불러온 병(sickness)은 지난 2세기 동안 사람과 사회와 정치와 경제가 맹목으로 뒤쫓은 ‘무차별적이며 일차원적인 기술주의 패러다임(the technocratic paradigm)’이다. ‘인간’과 ‘윤리’, ‘양심’과 ‘도덕’을 퇴출시킨 과학 및 과학기술과 경제의 동맹이 ‘만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패러다임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고통스러운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동안 인류가 이룩한 업적에 비하면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다. 기껏해야 간단히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부작용’ 짬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회칙은 병뿐만 아니라 증후군마저도 ‘치명’이라고 고발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자연과 저개발 지역의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과학)기술주의 패러다임’과 함께 회칙이 생태재앙을 불러온 또 다른 인간적 뿌리로 제시한 것이 ‘근대의 과도한 인간중심주의’다. 이는 세상 안에서 인간의 ‘참된

자리'를 잃어버리게 했다. 대신 자신만을 중심에 놓아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공간을 자의적으로 대상화함으로써 '세상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존엄함'을 훼손했다. 게다가 이는 개인 차원은 물론 사회 차원의 유대를 약화시켜버렸다. 마침내 인간은 자신을 “하느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실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절대적 지배행위”를 하게 만들었다.(117항)

회칙은 이 ‘과도한 인간중심주의’의 배경에 교회의 책임도 있음을 밝힌다.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을 부적절하게 제시한 것이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불러왔다고 고백한다.(116항 참조)

교종은 지난 해 이 땅을 방문하여 주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교회의 사목에 있어 공리주의적이며 실용주의적 태도를 갖게 될 유혹을 경계한다. 교종은 또 사목 활동가들의 ‘극도의 개인주의’를 ‘악’으로 부르기까지 한다. 지난 호에서 교종과 회칙이 교회 안팎으로부터 ‘반대 받는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를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왜곡된 인간중심주의의 겉모습이라 할 수 있는 극도의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실용주의(pragmatism)를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은 ‘절대적 지배’의 자리에서 ‘초발전’의 삶을 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49항 참조)

‘과도한 인간중심주의’가 불러온 현상은 두 극단이 공존하는 ‘일종의 지속적 정신분열’이다. 한 극단에는 “보다 더 작은 존재들, 즉 사회적 약자, 인간의 한 태아,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사람, 자연 자체에 본래부터 있는 가치들을 전혀 보지 않는 기술주의의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다른 극단에는, 앞의 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들한테 있는 특별한 가치를 전혀 보지 않는 태도”(118항)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 본성(인성, humanity) 자체의 쇄신’이 대두된다. 회칙은 ‘쇄신된 인성’이 결여된 인간중심주의를 ‘잘못 지도된(길을 잘못 들어선) 인간중심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불균형을 더할 것이며, 사람들의 고유한 역량(지성, 의지, 자유, 책임)을 존중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118항 참조)

회칙은 ‘상호 인격적 관계의 쇄신’, 곧 ‘사회적 차원’의 쇄신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만일 오늘날 생태 재앙이 근대성의 위기, 즉 윤리적, 문화적, 정신적 위기를 드러낸 하나의 작은 표지에 불과한 것이라면, 근본적인 모든 인간관계를 치유하

지 않으면서, 자연과 환경과 맺은 우리의 관계를 치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을 향한 개방성이라는 ‘초월적 차원’에서의 쇄신은 말할 것도 없다.(119항) 회칙은 이 ‘인성 자체’와 관계의 사회적 차원과 초월적 차원의 쇄신을 위한 길을 제4,5,6장에서 제안하고 있다.

인간의 ‘참된 자리’는 ‘무엇이든 누구든’ 폭압적으로 지배하려는, 세상과 독립된 ‘자기중심(self-centeredness)’에 있지 않다. 회칙은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참된 자리’를 되찾자고, 더 나아가 “새로운 종합”(121항)을 개발하자고 초대한다.

5. 실천적 상대주의와 고용보호, 우리 자신의 열망과 즉각적 욕구 충족만을 부추기는 무질서의 문화, 노동(고용)의 악화와 정치권위의 속임수

교종은 오늘날의 생태재앙이 저절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 2세기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하늘과 땅, 사람과 사회, 그리고 지구촌 차원에서 목격되는 부정적인 모습을 ‘발전과 성장’에 따른 부작용쯤으로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치명의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교종은 그 재앙의 원인을 그동안 인류가 지녀온 마음의 태도, ‘과학 및 과학기술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정신’ 혹은 ‘근대성’에서 찾는다. 이는 역사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즉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을 대변한다. 오늘날 생태의 재앙은 ‘무차별적이고 일차원적인’ 과학기술주의 패러다임을 쫓은 결과이며, ‘과도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맹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회칙은 극복해야 할 “최근 몇 세기의 잘못된 주장들”이라고 밝힌다. 그러면서 교종은 교회가 ‘실천적 상대주의’ ‘고용의 보호’ ‘생물학의 새로운 과학기술들’에 대해 계속해서 성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다.(121항)

실천적 상대주의: 마음의 태도는 생활양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회칙은 ‘잘못 인도된 인간중심주의’라는 마음의 태도가 ‘잘못 인도된 생활양식’, 곧 ‘실천적 상대주의문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이는 “당장의 편의를 절대적으로 우선하고 다른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122항) 생활양식이며, “우리 자신의 열망과 즉각적 욕구 충족 말고는 객관적인 진리들이나 건전한 원리들을” 부정하는 생활양식으로서, 하나의 “무질서”다.(123항)

이 실천적 상대주의문화는 ‘환경의 타락(재앙)’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패’를 불러온다. 교종은 ‘사회의 부패’ 현상으로 ‘강제노동’ ‘노예노동’ ‘아동 성 착취’와 ‘노인의 유기’ ‘인신매매’ ‘조직화된 범죄’, ‘마약거래’, ‘피의 다이아몬드 거래(무기밀매)’, ‘멸종위기 동물의 모피 거래’, ‘사람의 장기매매’, ‘아이들의 제거’ 따위의 행위를 구체적 사례로 들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의 볼 수 없는 힘”에 대한 맹신을, 문화적 측면에서는 “사용하고 버리는 문화”를 실천적 상대주의의 논리와 같다고 비판한다. 이렇게 사회와 문화 자체가 부패하면,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치적 노력이나 법 집행은 ‘독단적 강요’나 ‘장애물’로 보일 뿐이다.(123항)

고용의 보호: 교회가 성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의 다른 하나로서 회칙은 ‘고용의 보호’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계량(규모)의 경제들”(129항)과 “기업의 한정된 이해관계와 모호한 경제적 추론”(127항)을 앞세워 “단기적으로 보다 많은 재정(금융) 소득을 얻기 위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그만 두는 그런 기업” 활동과 “노동자의 해고와 기계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제적 진보”(128항)를 묵인하고 있다. 그 대가는 “많은 사람의 경제적 자유”는 가로막히고, “고용의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현실적 조건”(129항)이다.

교회는 변함없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성’을 가르쳤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치달고 있는 셈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람의 모든 활동이 갖는 목적과 의미에 관한 물음”(125항)을 오로지 ‘경제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환원(축소)주의’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는다.

인간 노동(활동)은 “창조된 세상을 신중한 방식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세상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식”(124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무엇과 맺어야 하고 맺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개념”에서 이해해야 한다(125항). 인간 노동은 “영적으로 의미 있는”(126항) 활동이며, “인격적 성장을 위한 무대”(127항)가 되며, “지상 생활에서의 성장과 인간적 발전과 인격적 완성을 향한, 곧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려는 경로”(128항)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정된 고용 보장”을 오늘날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127항)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의 다양성과 사업의 창의성을 옹호하는 그런 경제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래서 회칙은 “소규모 생산자들과 차별화된 생산물을 떠받쳐줄 분명하고 확고한 수단을 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자원과 재력을 가진 이들을 억제해야 할” 정치권위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한다.(129항)

“현실적 조건들은 많은 사람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고 있으며, 고용의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도, [당국이] 경제적 자유를 주장한다는 것은 정치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속임수(a doublespeak)를 쓰는 것입니다.”(129항) 우리의 현실을 보는 듯하다.

제4장 통합의 생태

1. 생태의 (자연) 환경요경제요소, 사회요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재앙은 두 개의 별도의 재앙, 환경의 재앙과 사회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의 재앙이다.

‘맑은 정신’으로 우리의 공동 가정(하늘, 땅, 물, 생명, 사람, 사회,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은 보면 가히 ‘재앙(위기)’이라 불러도 될 것이다(회칙 제1장). 교회는 인류가 제기하는 고뇌에 찬 물음에 ‘응답’할 사명을 갖는다. 하느님께 대한 교회의 신앙 때문이며(제2장), 게다가 “인류를 자멸하지 않도록 보호해야”(79항) 하기 때문이다.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회칙은 ‘십자로’에 도달한 인류가 가야 길을 찾는 대화와 토론에 그 협력을 아끼지 않으려 한다. 교종은 ‘재앙’의 근본원인으로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무차별적이고 일차원적인 ‘과학기술주의’와 ‘과도한 인간중심주의’를 꼽으며, ‘실질적 상대주의’와 ‘고용의 문제’와 ‘새로운 생물학적 과학기술’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그 윤리적 함의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다.(제3장)

이제 회칙은 ‘재앙’에 직면한 인류가 가던 ‘무모함’의 길을 잠시 멈춰 ‘통합의 생태’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제4장) ‘생태’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이미 ‘통합’이란 의미가 담겨 있음에도, 그 서술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재앙’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접근방식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계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하나의 (통합) 생태에는 (자연) 환경,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의 요소

들을 갖고 있는데, 이 요소들은 불가분의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인간 차원과 사회 차원을 분명하게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회칙이 강조하는 것을 요약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한다.

생태가 갖는 (자연) 환경의 요소: “자연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사회의 체계들(경제, 행동양식, 실재를 파악하는 방식들)과 자연계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자연’은 ‘사회’와 분리될 수 없으며 단순히 사회의 무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 역시 자연을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자연 생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 생태계라는 ‘실재’를 기반으로 해서 살고 행동하는 것이다.(139-40항 참조)

생태가 갖는 경제의 요소: ‘(자연) 환경보호’은 ‘발전’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전과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생태는 경제의 요소를 지니게 된다. 또 그 때문에 경제학은 경제 성장만을 위해 절차를 단순화하고 생산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상이한 여러 지식들을 함께 고려하는 인본주의를 따라야 한다. 즉 사람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141항 참조)

우리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시행해야 한다. 회칙은 이를 ‘환경충격평가’라고 부른다. 회칙은 이 ‘충격평가’를 위해 ‘연구자들의 합당한 역할’ ‘다양한 연구의 상호 작용 촉진’과 ‘폭넓은 학문적 자유의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의 이 ‘환경충격평가’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 관점’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4대강 사업,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핵발전소 건설, 케이블카 사업 따위를 들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경제 발전에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자연환경이 갖는 본래의 가치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이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생태가 갖는 사회의 요소: (자연) 환경과 사람의 삶의 질에 중요한 결과를 낳는 것은 ‘사회 제도’이므로, 생태는 필연적으로 ‘사회(제도)의 요소’를 갖게 된다. 가정에서부터 국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제도는 인간관계들을 규정하므로,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 ‘제도의 건전성’과 ‘유효성’이다. 낮은 수준의 건전성과 유효성(제도의 불안정함)은 ‘불법’의 일반화를 불러오는데, 회칙은 특히 이를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제시한다. 낮은 수준의 제도적 유효성은 소수에게는 혜택을, 절대다수

에게는 고통을 안겨주고, 불법과 탈법의 일반화는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지속적으로 황폐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42항 참조)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의 ‘노동개혁’을 들 수 있다. ‘노동개혁’이라는 비판을 받는 배경에는 제도의 건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경험상의 회의가 자리하고 있다. 소수 기업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다수의 노동자의 삶의 질을 황폐화시킬 것이라 우려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우리의 노동관련 정책(제도)이 (대)기업 편향적이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노동개혁이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워 또 다시 ‘노동’과 ‘사회’의 희생(양보)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바로 그 제도의 불건전성 때문이다.

2. 생태의 문화요소

“문화적 정체성은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사회적 구조들은 생활과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깨달음을 구체화한
것들입니다. 하나의 문화가 사라진다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의 한 종이 사라지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145항)

우리는 ‘문화’라는 말을 흔히 ‘예술 분야’ 정도에 제한하여 사용하려 한다. 대중매체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대중매체가 ‘문화’를 소개할 때 그 내용의 대부분 음악이나 미술, 책이나 전시회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때도, 우리의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프레임이 빈번하게 작동한다. 예를 들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고급의 문화와 대중의 문화로 구별하여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차별을 구조화한다.

그에 따른 폐단은 심각하다. 서열화를 가져오고 우월과 열등을 내재화시킨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사회의 ‘예능인’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대중을 향한, 혹은 대중에게서 분출된 예술을 가볍게 여기려 한다. 최근의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논란도 그 같은 일부 집단의 우월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이끌어 왔던 그 역동성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고, 이른바 ‘위대한(?) 인물’들이나 ‘거창한(?) 사건’에 대한 평가를 두고 시끄러울 뿐이다. 일제 강점, 한국전쟁,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땅의 평범한 시민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역사교육’은 불가능한 것인가?

생태가 갖는 문화요소 : 교종은 ‘문화’를 그렇게 좁은 의미로 이해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문화는 한 공동체 안에 얹히고설킨 ‘관계’를 드러내는 양식이다.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느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어느 특정 공동체가 특정 시기에 구체화시킨 것, 그것을 문화라고 이해한다.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은 문화의 아버지(어머니)이며 동시에 문화의 아들(딸)이다. 그래서 회칙은 ‘자연’이 일종의 세습재산이듯이, 문화 역시 ‘세습재산’이라고 밝히면서, 그 세습재산이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한다. “문화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 이상의 무엇입니다. 문화 역시 무엇보다도 살아있으며, 역동적이며, 참여적인 현재의 실재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인간과 (자연, 사회)환경 사이의 관계를 재고할 때 배제해서는 안 될 실재입니다.”(143항)

자연과 마찬가지로 이 문화라는 실재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증세는 문화의 ‘평준화’, 문화의 ‘ 획일화와 다양성의 약화’, ‘문화적 정체성 파괴’를 꼽는다. 삶의 생생함도, 역동성도, 참여성도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문화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 회칙이 꼽는 인간적 원인은 ‘세계화된 경제 장치들이 조장하는 소비주의의 관점’과 ‘획일화된 규제와 기술적 개입들’이다.(144항)

사실 우리는 문화의 황폐함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문화를 예로 살펴보자. 정치는 인간의 존엄함을 증진시킴으로써 공동선 실현을 위해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활동을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려하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존엄함이나 공동선이나 올바른 질서라는 숭고한 가치는 실종되고 오로지 ‘돈’과 맺은 관계에서만 바라보라고 내몰고 있지 않은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존중하고, 돈이 드는 사람은 배제하려 한다. 선과 악의 식별 노력은 실종되고 특정집단의 경제적 이익만 득세한다. ‘윤리 도덕적 질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경제적 이해득실’만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수 십 년 전 이웃나라 시민을 ‘경제적 동물(economic animal)’이라며 손가락질한 때가 있었다. 그 손가락질은 지금 어디를 누구를 겨냥하고 있을까! 시민 가운데 누구도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고 있을까? 저절로 그렇게 되었을까? 혹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필연의 과정일까? 아니다. 누군가 혹은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회칙이 지적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의 세계화된 경제의 여러 작동 장치들은 사람을 소비주의의 관점에서만 보도록 부추깁니다. (혹은 세계화된 경제의

여러 작동 장치들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소비’의 관점에서 보도록 부추깁니다.)”
(144항)

사람이 자신과 이웃과 사회와 자연과 그리고 하느님과 맺은 관계를 ‘돈’의 관점으로만 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관계 양식으로서의 우리 문화를 두고, 건전한 문화라고 해야 할까? 병든 문화라고 해야 할까? 만일 병든 문화라면, 우리는 그 병을 치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치유하지 않는다면, 더 중한 병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다. 우리는 문화의 아버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회자되는 ‘금 손가락과 흙 손가락’에 관한 이야기를 그저 재기발랄한 말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화는 쓰고 버리는 소비재가 아니라 세습재산이다. 당연히 물려줘야 할 실재다.

(평화신문 연재)